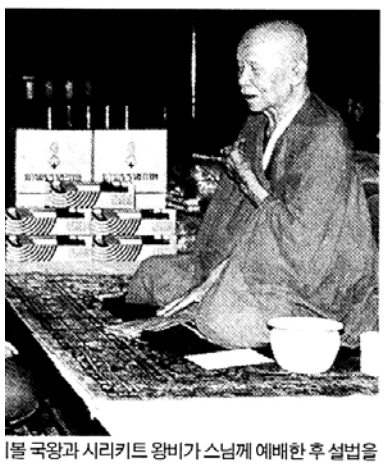
는 '두 바퀴'



(태국 왓바반탈선원장)

의 원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출재가
나 수행법을 닦고 있다.
. 원리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스승에 따라
미얀마의 고승 마하시 선사(Mahasi Sayadaw,
: 아직 생소한 태국의 위빠사나는 대소승의 수행
으로 대표되고 있다.
을 얻은 아라한으로서, 남방불교권에서는 20세
아짠 문의 수행법과 치열한 구도심, 헌신적인 가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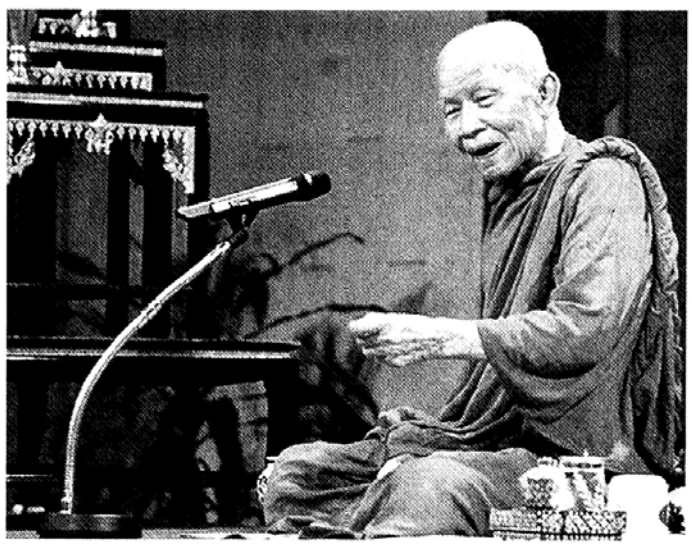


몰 국왕과 시리키트 왕비가 스님께 예배한 후 설법을

수 강조

정·혜 수행을

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인언이나 염불 수행이 일념으로 진행돼 일단 고
함이 자리잡히면, 이 집중을 이용해 몸과 마음의
성을 관찰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바로 마음의 본
을 직시하고 어떻게 무명과 착각이 '나'라는 잘
된 생각을 일으키고,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끝
는 고통을 낳는가를 깨닫게 한다.
마하 부와 스님은 선정이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도록 수행중에 일어나는 시각적인 이미지 등 다
한 현상과 관련된 대응법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님은 수행중에 나타나는 내, 외적인 현상들을 구
하되, 어떤 형태의 선정을 닦더라도 지혜의 중요



◇마하부와 스님은 재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직접 전하기 위해, 방콕의 왓 바보르니오즈 사원이나 영국 런던의 태국사원에서 법문한다. 스님의 법문은 '설법제일 부루나존자'처럼 자상하기로 유명하다.

마하부와 스님은

마하 부와 스님은 1913년 태국 우돈타니에서 출생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일찍부터 빨리어(Pali)와 경전을 공부했으며, 이 때부터 스승없이 위빠사나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후 아라한과를 증득한 것으로 알려진 당대 최고의 고승인 아짠 문(1870~1950) 문하에서 위빠사나와 빨리 삼장을 배운 스님은 눈에 뛰게 수행력을 얻게 됐다.

마하 부와 스님은 아짠 문을 친견하기 이전에 이미 선정(사마타) 명상 중의 일부를 증득했지만, 아짠 문은 만난 즉석에서 '깨달음의 지혜'와 '선정에서 오는 희열' 상태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한 후 되돌려 보내, 좀더 수련을 쌓게 했다.

이러한 경책을 받은 후 마하 부와는 여러 해 동안 피나는 용맹정진으로 전과는 다른 희열로 충만한 높은 선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를 숙달함으로써, 대단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태국 북동부의 숲속에서 아짠 문의 철저한 지도와 장기간의 두타행으로 경학과 수행을 두루 겸비한 아짠 마하 부와는 오늘날 태국을 대표하는 위빠사나 대선사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왓바반탈 사원의 선원장으로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철저한 두타행과 엄격한 가풍으로 제자들을 지도하는 한편, '태국 국민 돕기 캠페인'이란 이름아래 이웃을 위한 보시바라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위빠사나 대선사…泰국민돕기운동 벌여

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수행자들은 어떤 종류의 선정을 얻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기 쉽다. 마음이 선정상태에 머물 때,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도 이러한 깊은 이완(弛緩)의 상태



◇태국 북부 오도론 지방에 위치한 숲속 승가.

를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수행자가 지혜 명상을 할만큼 충분히 고요해져 있더라도, 지혜의 계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선정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불교적 수행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들은 지혜를 이용해 망상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수련에 들어가게 된다. 수행자는 삼법인(三法印 즉 無常 苦 無我)과 오온(五蘊, 色受想行識) 등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한다.

"정진이 깊어감에 따라, 수행자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오온과 대자연의 본성을 발견하는 데 완전히 몰두합니다. 그는 오온과 자연의 본질을 쉬지 않고 찾아내려는 간절함 때문에 좀처럼 누워서 잠을 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삼계의 어디에나 드러나 있는 다르마(法, dharma)는 어떤 상태에서도 욕망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에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써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 선정을 얻을 수 있다. '지혜가 선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마하 부와 스님은 "지혜와 선정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의 다르마'"라고 말한다. 확고부동한 마음 집중과 마음챙김 수련으로 선정과 지혜가 충분히 숙달됐을 때 드디어 '마음의 중심부'를 바로 투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도저히 발견될 것 같지 않았던 다르가는 마침내 통찰력으로 드러나, 감춰지거나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깊은 선정과 지혜 수련으로 무명은 억겁의 세월동안 '절대적 권좌'를 누려왔던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때 사용해야 하는 '금강(지혜)의 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무명은 부수어져 사라집니다. 이 순간 수없는 세월동안 무명에 가려져 있던 '도난당했던 물건' 즉, 진리의 전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일본 조동종의 개조(開祖) 도오겐(道元, 1200~1253)선사가 1223년 중국 송나라로 들어갔다. 도오겐은 배에 머무르면서 송나라 사찰과 스님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상인에게 표고버섯을 사기 위해 아육왕산에서 온 늙은 전좌(부엌일을 담당)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오겐은 전좌스님에게 하루 묵어가라고 권했다. 전좌스님은 "내가 없으면 대중스님들의 공양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고 했다. 도오겐은 "스님 한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공양에 무슨 차질까지 생기겠습니까. 보아하니 연세도 많으신데 경전이나 보며 참선을 하시지, 왜 힘든 주방일을 하십니까?"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전좌스님은 "이국에서 온 젊은이여! 그대는 아직도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군."이에 도오겐이 재차 "그러면 수행이 무엇이고, 문자는 무엇입니까?" 묻자, 전좌스님은 "지금 그대가 질문하며 서 있는 발밑을 헛디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네" 하였다. 전좌스님은 도오겐선사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하는 스승가운데 한 분이었다.

전좌스님처럼 하찮은 부엌일조차도 수행으로 여기고 자신의 수행보다, 대중수호하기를 부처님 공양하듯이 행하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포교 일선에서 중생들과 더불어 동사섭(同事攝)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즉 수행자다운 면모를 잃지 않으며, 화려한 장미꽃 같은 존재는 아닐지언정 들판의 민들레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수행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권이 몇번이나 교체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여도 민중들의 삶은 항상 여전히 그대로였다. '민초(民草)'라는 이름으로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숨소리와 땀, 눈물의 냄새가 풍겼던 이들이 민중들이었고, 이런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단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해 세간에 지탄받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불가를 지켜온 수행자들이 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마(dharma)의 강줄기가 면면히 흘러왔으며 승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 반이 여자이듯 승가의 반이 비구니스님들이다. 비구니스님들은 민초와 같은 삶과 수행 속에서 중생들의 삶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덧붙이자면, 비구니스님들은 대체로 젊어서는 참선·간경 등으로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포교일선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의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스님들이 많은것 같다)

승가의 한 귀퉁이에서 묵묵히 평상심이 도(道)임을 몸소 보여주는 스님이 있다. 법인스님인데, 내 도반의 은사이다.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나가는데 '참선은 이렇게 해야 하고, 염불·간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따스함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냥 서 있는 여여(如如)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행하는 길이며 '스님다운 스님' 이전에 '구수한 인간다운 인간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나는 한 3년전부터 시름시름 많이 아팠다. 감기손님만 해도 나에게 한번 오면 한달 이상을 머물러 떠나지 않았고, 그 외 가지가지로 병치레를 하였다. 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평범속 여여함 갖춘 수행자

30년 지극하게 은사 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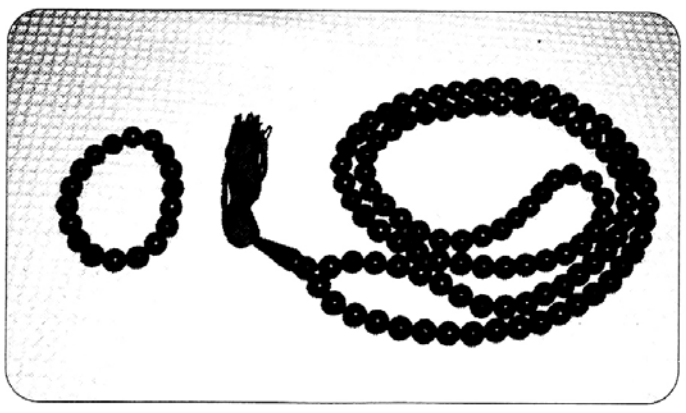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인생도 수행도 익어가는 겁니다. 아픈 것도 다 사람 구실 하려고 아픈 것이오. 모든 사람에게 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 법인데 특히 스님네에게 육신의 아픔이 없다면 분명 다른 고통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이 때만 넘기면 괜찮아요…"

지극히 평범한 말이다. 하지만 스님의 이 말씀은 오랜동안 가슴에 자리잡았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 보았던 것보다 생생한 교훈으로 다가와 삶과 수행을 여일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내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스님의 은사스님은 30여년 병을 앓다 올해 2월 세수 99세로 돌아가셨다. 스님께서는 노스님을 정성스럽게 시봉했는데, 시봉을 그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셨다. 주위 가까운 스님들이, 법인스님이 오랫동안 은사스님을 시봉하느라 자신의 살림살이(수행)를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와 하면서도 법인스님의, 스승에 대한 지극정성과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들 말하곤 했다. 은사스님이 돌아가시자 스님은 상좌(내 도반)에게 자주 여행이나 하자고 하셨단다. 근 30년동안 지병을 앓는 어른스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마음 편히 외출조차 하지 못했고,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계속)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신비한 氣 운석 염주, 단주



미국 노벨상 수상자인 헤럴드 윌리박사와 러시아의 코지레프박사는 "氣, 플라즈마" 등으로 불리는 고차원에너지中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큰 에너지의 속성을 『Time』 즉 "시간에너지"라고 정의 내렸다. 시간에너지는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것으로 광파동처럼 전파되지 않고 동시에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작용되며, 시간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고 또한 존재계의 모든 사물을 연결시킨다고 하였다. 특이한 점은 시간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초싸이킥(초정신)력이 매우 높아지고 그런 곳에서는 텔레파시, 염동력, 투시 등 ESP(초능력)의 힘이 크게 강화된다고 한다. 우리가 별똥별 즉, 운석이라고 부르는 외계의 광석 중에는 철운석, 석운석, 텍타이트석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운석은 텍타이트이다. 텍타이트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손이 화끈화끈, 따끔따끔, 짜릿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그 뜨거운 에너지 장을 느끼기도 할 정도로 신비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앞에 설명한 "시간에너지 氣"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그 사람의 주위 인체 오오라장이 크게 증대되게되어 잠재된 초능력적 소양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 영험한 힘은 소원성취의 기도와 나쁜 운명전환의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각종 신비한 氣물품등을 보급하여 왔던 본원에서도 이번에 어렵게 소량을 구하여 용맹정진하는 정신수련 수련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염주와 단주를 만들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신의 오오라와 경맥 유통 및 잠재능력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MF정신문화원장 송종훈 (前 스포츠서울 氣칼럼 연재위원)

※텍타이트단주(35만원)와 그 외에 텍타이트108염주, 머니 타이남(물 속 氣광석, 일명 여의주), 라피즈라즐리 등 신비한 힘의 명상용 氣제품들이 있습니다.

02)735-6575 ~ 6 www.mindforce.co.kr